보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시작

보성군이 여성 청소년을 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상품권'을 1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만 16세~18세 이하 대상 신청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월 11500원 생리용품 전용상품권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상품권'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를 제공을 위해 신규 시책으로 시행되며, 지난 6월부터 만 16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지급금액은 매월 11,500원이며,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103,500원)을 지급받는다. 내년부터는 12개월분(138,000원)이 지급되며, 1차 신청인원은 240명이다. 신청기간 내 미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청소년의 구매 선택권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생리용품 전용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관내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올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내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지원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신규시책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리용품 때문에 매월 고민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올해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범운영 후, 중학생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핵심 관광기반시설 점검 실시

해비치로 야간경관·배알도 해상보도교 및 섬 정원 등 방문

광양시 박영수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민선 7기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광양관광의 권역별 핵심 관광기반 사업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섰다.

시는 박영수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박순기 관광과장,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지난 12~13일 (이틀간) 광양해비치로, 배알도 및 망덕포구 일원 등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관광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살피는 한편, 스토리텔링 강화를 통한 브랜딩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첫날, 박영수 국장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대상지인 광양해비치로를 방문해 해오름육교를 둘러보고 이음길 및 경관조명 진척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튿날엔 망덕포구와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망덕포구~배알도 해상보도교 공사현장과, 섬 정원으로 조성한 배알도를 방문했다.

아울러 섬진강 뱃길 복원과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짚트랙 공사현장을 방문해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광양해비치로와 배알도 및 망덕포구 일원은 '시민이 일상에서 관광을 누리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오름육교, 야간경관, 달빛해변, 짚트랙, 섬정원 등 대규모 관광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광양관광 핵심공간이다.

특히, 배알도근린공원~배알도~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 2개의 명칭을 공모하고 있으며, 배알도 섬 정원도 마무리 정비를 마치고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다.

박영수 관광문화환경국장은 "그동안 광양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노력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고흥군의회, 하반기 청렴 교육 실시

지역대표 및 공무원이 가져야 할 청렴 리더십 함양

고흥군의회는 지난 12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고흥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청렴 교육은 지역사회의 리더 및 주민 대표로서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정립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청렴역량 향상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 2명을 초빙하여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법령교육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청렴리더쉽을 인문학, 역사 속 인물 등 다양한 소재와 접목시킨 리더십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송영현 의장을 비롯한 고흥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지역 대표 및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청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진로 고민…"제2기 청년희망학교에서 답을 찾다"

18일까지 모집…퍼실리테이션학과·퍼퓸디자이너·우드DIY학과 등 8개 교육 강좌 운영

여수시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 2기 청년 희망학교'에 참여할 청년들을 이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학교'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 분야의 전문 역량과 경험을 갖춘 청년단체 또는 기업이 멘토가 되어 학과를 개설해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여수YMCA가 사업을 수행한다.

강좌는 3개 분야에 8개 학과로 진로설계 분야 (퍼퓸디자이너, 나만의펍창업, 미래설계준비 학과), 생활교육 분야 (사진, 스페셜티커피, 우드DIY 학과), 시민참여 분야 (퍼실리테이션, 청년정책 학과)로 나뉜다.

오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12회 운영되며, 청년들은 관심 있는 학과를 선택해 총 12회의 수업 중 10회 이상 참여하면 수료 자격을 얻게 된다.

신청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수강료는 무료이며 일부 실습학과는 소정의 재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여수YMCA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수 YMCA 홈페이지나 전화(☎070-7733-231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과 전문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진로 탐색과 자기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순천시, 최초 주민주도 생태도시 기본 조례 제정

5540명 시민 조례 제정 청원

순천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삶과 일상까지 생태적으로 변화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공포했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난해 2월, 순천시민 546명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 청구'에서 시작되었다.

순천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 지난해 5월 1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순천시민들이 직접 연구모임(100인)을 구성해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세부 법률 검토를 통해 조례안 가닥을 잡았고, 지난 2월 17일 생태도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5,540명의 시민이 입법청원 서명부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에 각각 접수하였다.

순천시는 내부검토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에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지난 7월 5일 공포됐다. 생태도시 조례는 5년 단위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 평가,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 선정 및 범시민 참여사업 등이 담겨 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생태적인 삶의 실천을 바라는 순천시민들의 요구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응답해줬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은 "생태도시로서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태의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실천활동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